



지역발전 기여 '자랑스러운 전남인' 18명 선정

전남도는 24일 올해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귀감이 된 1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는 경제분야의 최병권 C.C 컴퍼니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도민소득분야는 김견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

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을 대표, 박종국 ㈜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씨 등이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사회봉사·사회안전분야는 김정열 진화섬유(주)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 교수, 김미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가 선정됐으며 기타분야로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 윤기제 청학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25일 화순군에서 열리는 '제16회 도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이경수 기자 kspen@kdaily.com
16.7 X 13.7 cm

全南日報

2012년 10월 25일 (목)
18면 인물



전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18명 선정 오늘 도민의날 행사서 시상

전남도는 24일 올해 전남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는 분야별로 경제분야의 경위 최병권 C.C COMPANY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도민소득분야는 김견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을 대표, 박종국 (주)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 씨 등이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사회봉사·사회안전분야는 김정열 진화섬유(주)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 교수, 김미순 전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가 선정됐으며 기타분야로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 윤기제 청학녹색농

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25일 화순군에서 열리는 '제16회 도민의 날 행사' 기념식장에서 열린다.

박준수 전남도 인력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전남도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지역 인사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남인상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hskang@jinbo.com
16.8 X 16.2 cm

光州日報

2012년 10월 25일 (목)
18면 지역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선정



전남도는 24일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 18명을 선정·발표했다.

수상자는 ▲경제분야 최병권 C.C COMPANY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도민소득분야 김견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을 대표, 박종국 (주)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 씨 등이다.

또 ▲관광·예술·체육분야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회봉사·사회안전분야 김정열 진화섬유(주)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 교수, 김미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가 선정됐으며 ▲기타분야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 윤기제 청학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
7.2 X 15.7 cm

무등일보

2012년 10월 25일 (목)
18면 인물

전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18명 선정

오늘 화순 도민의 날 행사서 시상

전남도는 24일 올해 전남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는 최병권 C.C COMPANY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다.

도민소독분야는 김견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을 대표, 박종국 ㈜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 씨 등이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씨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다. 사회봉사·사회안전분야는 김정열 진화섬유㈜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미선 전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다.

기타 분야로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과 윤기제 청학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5일 화순군에서 열리는 '제16회 도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윤승환기자

10.9 X 9.9 cm

광남일보

2012년 10월 25일 (목)
18면 사설/칼럼



최병권

김견식

박종국

김정열

서정복

허상무

道 '자랑스러운 전남인' 18명 선정

최병권·김종률·김견식·박종국·서정복 등... 전남 지역발전 기여

전남도는 올해 전남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로 자력으로 성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귀감이 되는 1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는 분야별로 경제분야의 최병권 C.C COMPANY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도민소독분야는 김견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을 대표, 박종국 ㈜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 씨 등이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씨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사회봉사·사회안전분야는 김정열 진화섬유㈜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미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가 선정됐다.

기타분야로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 윤기제 청학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25일 화순군에서 열리는 '제16회 도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수여하게 된다.

최현수 기자 chs2020@

15.6 X 14.4 cm

전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선정

최병권 회장·서정복 협회장 등 18명 ‘영예’

전남도가 ‘올해의 자랑스런 전남인’ 18명을 선정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인 상 수상자 18명은 분야별로 경제분야의 경우 최병권 C.C COMPANY 회장과 김종을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다.

또 도민소독분야는 김건식 병영주조장 대표, 황금영 순천종돈장 대표, 오경배 영동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이사, 우정단 인동주마를 대표, 박종국 (주)피엔케이 대표, 귀어인 이정숙 씨 등이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허상무 전남문화해설사협회장, 선영숙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원장, 김용을씨 전남도청 펜싱팀 코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사회봉사·사회안정분야는 김정열 진화섬유(주) 대표이사, 박노춘 순천제일대학 교수, 김미순 전남도 의용소방대 여성대표가 선정됐으며 기타분야로 장근태 목포시 중앙어린이집 원장, 윤기제 청학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장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최병권씨는 영암에 현대삼호중공업 유치를 전남이 조선산업 주력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김종을씨는 국내 최초로 간척지를 이용한 시설원에 모델을 제시하고 일본에 파프리카 등 참살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건식씨는 장인정신으로 54년 동안 전통주를 생산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로 막걸리 전성시대를 견인했고 황금영씨는 축산업의 위생수준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했다. 오경배씨는 전통사물놀이와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 재배한 ‘그린음악쌀’을 명품브랜드로 유통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섰고 서상균씨는 친환경 차발관리로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고급화에 주력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정단씨는 인동주 발명특허와 함께 향토음식문화 전수에 앞장섰으며 박종국씨는 헛개 나무를 건강식품으로 상품화하는 등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이정숙씨는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어촌으로 들어와 어업에 종사,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인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했다.

서정복씨는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낙후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허상무씨는 전남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유산 교육 강의에 열의를 쏟고 있으며 선영숙씨는 신체적 장애를 딛고 국악부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한 우리 것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김용을씨는 2012런던올림픽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펜싱종목 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김정열씨는 장학사업 전개와 불우이웃 돕기, 고향사랑 실천 등 사회봉사에 기여했고 박노춘씨는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 동아리 지도교수로 활동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했으며 김미순씨는 화재 진압·재난현장 지원활동,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에 앞장서왔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전남매일

2012년 10월 25일 (목)
04면 경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4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4호로 지정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는 전국 14개 인증기관(국내10, 외국계4)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유통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한 업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5.5 X 9.1 cm

全南日報

2012년 10월 25일 (목)
02면 종합

내일 전남 사회적 경제 진단 학술대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와 (사)전남지역발전포럼이 공동으로 '전남 사회적 경제 진단과 확충을 위한 2012추계공동학술대회'를 26일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전남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선두로 한 전남 사회적

경제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관각계의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석 기자 wsjang@jinbo.com

11.1 X 5.7 cm

全南日報

2012년 10월 25일 (목)
18면 인물



농촌체험마을을 홍보 봉사대 운영

일 '대학생 인턴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립대학교와 한국관광공사 호남권협력단은 24

전남도립대 제공
11.1 X 7.0 cm

전남매일

2012년 10월 25일 (목)
12면 스포츠

서정복 회장·김용을 감독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선정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64·성광기업(주) 대표이사)과 김용을 런던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감독(49·전남도청 펜싱부 코치)이 2012년 전남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체육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서 회장과 김 감독이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25일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6회 도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상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정복 전남축구협장은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며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또 당시 공정한 경기운영으로 한국폐어플레이위원회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조성 및 전남체육진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남체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썼다는 평가다.

지난 2001년부터 전남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서 회장은 전남지역의 축구 붐 조성 및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체육특보로서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 회장은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밖의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많은 전남체육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언제, 어디서든 전남체육 발



서정복



김용을

전과 진흥을 위해서라면 가진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명지도로 부상한 김용을 감독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 감독은 국가대표 코치(1991~1996, 2003, 2009~2012) 및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펜싱의 탁월한 경기력 발휘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런던올림픽대회 펜싱 감독을 맡아 우수한 성적(금 2, 은 1, 동 2개)을 거두는데 일조했으며 사브르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지연(익산시청)을 발굴한 숨은 주역으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식 펜싱 지도법(손이 아닌 발로 하는 펜싱)'을 개발, 장신의 유럽선수 격파의 비법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김용을 코치는 "너무도 큰 상을 받게 돼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전남체육,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싶다"고 수감 소감을 밝혔다.

/최진화 기자

11.1 X 20.8 cm